

데스크 시각

‘벚꽃 대선’과 호남의 선택



임 동 욱
서울취재본부 부분부장

조기 대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금 까지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법 위 반 혐의와 국정 농단의 정도는 돌이키기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월 국회 의 탄핵 소추를 인용, 4~5월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봄에 대선이 치러지는 데다 새로운 시 대에 대한 희망까지 담아 ‘벚꽃 대선’이라 고를 한다. 하지만 ‘벚꽃 대선’을 바라보 는 호남 민심은 그리 편치만은 않다. 새로 운 시대에 대한 열망과 기대는 크지만 유 력 대선 주자 한 명 없는 호남의 정치 현 실은 초라하기 그지없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에서 호남은 국민의당 바랍 의 진원지 역할을 하며 정치권의 변화를 주도했다. 호남의 맹주를 민주당에서 국 민의당으로 교체한 것은 물론 16년 만의 여소야대, 20년만의 원내 3당 체제라는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여기에 는 민주당의 오만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있었지만 정국을 주도하고 차기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호남 정치 복원에 대한 갈 증도 반영됐다.

정치적 불임 지역 되나

실제로 김대중(DJ) 전 대통령 이후 호 남은 자체적 정권 창출이 어려운 정치적 불임 지역으로 전락했다. 참여정부를 창 출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전북의 정동영 의원이 17대 대선에 도전하기도 했지만 거기까지였다. 호남이 주체가 되 지 않은 정권과 정당에서 미래 비전을 갖 춘 정치적 인프라 구성은 한계를 보였다. 호남 정치권 인사들은 과감한 도전과 응 전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거나 질서에 순 응하면서 스스로 정치적 존재감을 약화 시켰다.

현재의 대선 주자들 가운데 호남 출신 의 유력 주자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현실 이 이를 극명하게 말해 주고 있다. 더구나 차차기를 노릴 주자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러다간 10년이나 20년 후에도 호남 출신 유력 대권 주자를 찾아보기 어 렵지 않겠느냐는 비판적 전망마저 나오 고 있다.

이 때문에 야권의 심장 역할을 했던 호 남의 정치적 위상도 쪼그라들었다. 제1 야당인 민주당에서 호남의 목소리는 찾 아보기 어렵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호남을 잃고도 원내 1당이 됐다. 민주당 이 호남의 한계를 넘어 비로소 전국 정당 화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는 했다. 전남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계호 의 원은 호남 참패에도 촉제 분위기에 젖었 던 당선자 연찬회에서 서러운 눈물을 쏟 기도 했다. 호남은 이제 야권의 상수가 아닌 종속변수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판이다.

전략적 선택과 결집 필요

반면 기대를 모았던 국민의당 역시 조 기 대선을 앞두고 초라한 현실에 직면하 고 있다. 20대 국회 초반,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으로 타격을 받았던 국민의당은 촛불 및 탄핵 정국 주도에서도 밀리면서 정권 창출의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제 3지대에서의 정권 창출 시나리오가 나오 고 있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 인다. 국민의당을 매개로 한 ‘호남 주도의 정권 창출 방식식’의 해법 마련이 쉽지 않 은 상황이다.

하지만 촛불로 나타난 시대정신과 호

남의 미래를 담보하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길은 열려 있다. 호남 민심은 야권으로의 정권 교체를 열어 가 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야권의 대선 주 자들이 앞다투어 호남을 찾는 이유도 여 기에 있다. 이를 지렛대로 호남은 새로운 길을 열어가갈 수 있으며 호남이 주도적으 로 참여하는 야권의 공동 정부나 연립정 부 구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개혁적 조치를 실행함으 로써 안정적인 국회 의석 확보는 물론 호 남의 인재를 양성하는 길을 튼다는 점에 서 이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담을 수 있 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호남 민심의 전략적 선택과 결집이 필요하다. 이미 만 들어진 대선 구도와 선두 후보를 따라가 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고 신중한 접근을 통해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한다.

베트남의 국부로 추앙받는 호치민 주 석은 “10년 후를 생각한다면 나무를 심 고, 100년 후를 생각한다면 인재를 길러 라”라는 말을 남겼다. 호남의 미래를 위 한 인재 육성을 위해서라도 호남 민심이 주도적으로 정권 교체에 나서고 차기 정 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벚꽃 대선’을 한 편의 감동의 드라마로 만드는 호남 민심의 저력을 기대해 본다.

社 說

대선 주자들 호남의 미래 비전 제시하라

조기 대선 정국이 전개되면서 최근 야권 잠룡들이 앞다투어 호남을 방문 하고 있다. 야권의 심장인 호남 민심의 지지 없이는 ‘대선행 티켓’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모두들 호남에 대한 진정성 강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야권 대선 주자들 가운 데 호남의 현실을 타개하고 미래의 희 망을 열 수 있는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 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대 부분 광주정신을 내세우며 지방 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을 통해 호남의 차별 구조를 타파하겠다는 원 론적인 입장만 보이고 있다.

일부 주자들이 광주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활성화, 차세대 자동차 부품 클러 스터 조성, 전남 에너지 밸리 육성 등을 거론하지만 기존의 현안 사업을 재탕 하는 수준의 공약일 뿐이다. 호남에 대 한 진정성을 강조하면서도 호남에 대 한 깊은 ‘성찰’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 이다.

그들이 진정으로 호남에 대한 고민

을 했다면 지역적 소의 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소선거구제 폐지 등 선거법 개 정이나 더 나아가 헌법 개정 등을 통한 지역구도 극복의 비전을 제시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 뿌리까지 말라 버린 호남의 경제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적 접근 방법은 물론 호남 인재 중 용의 구체적 로드맵도 내놓을 수 있었 을 것이다.

일부 주자들은 대선 정국이 본격화 되면 호남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공약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심화 된 호남의 소외와 피해한 현실에 대한 깊은 고민을 보이지 못했던 이들도다. 따라서 대선 정국이 본격화된다고 해서 호남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대안 을 내놓을 것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대선 주자들이 저마다 강조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은 호남 소외 국 복의 과거 시스템과의 결별에서 출발 한다는 점에서 보다 깊은 성찰이 요구 된다 하겠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도 수도권에 쏠렸더니

교육 분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마저 수도권에 쏠린 것대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받는 혜택마저 대학 간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대 학·교육 정책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최근 교 육부의 2016년 대학 재정지원 사업 현 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남 대가 지난해 대학재정지원 사업 상위 30개 대학 중 187억4700만 원을 지원 받아 겨우 16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이 마저도 광주·전남 대학들 가운데에선 유일하다.

대학 역량 강화 10개 사업에 대한 전 국 4년제 대학 지원 현황에서도 정부 지원금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 났다. 주로 수도권과 경상도 지역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상위 50개 대학 중 서 울 경기권이 32%, 경상권이 38%를 차 지하고 있으나 전라권은 14%에 불과 했다.

학생 1인당 수혜액에서도 차이가 컸

다. 광주 전남 대학들 중 동신대가 학생 1인당 159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고 전 남대는 110만 원, 조선대 52만 원 등이 었다. 반면 포항공대의 경우 1인당 지 원금은 827만 원으로 전남대의 7.5배, 조선대의 16배에 달해 대학에 따라 학 생들이 받는 혜택에 크게 차이가 났다.

이 같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서 울 등 수도권에 재정지원금을 집중 배 정한 결과인데 경쟁력에서 밀리는 지 방대로서는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는 지방대 육성 구조가 구두 선(口頭禪)에 그쳤음을 보여 준다. 이 제 교육의 지방 분산 차원에서 지역별 균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지역 인재 육성·확보의 선순환 구조 와 더불어 지역경제·지역문화 등 유무 형의 지역발전 거점 기능이라는 점에 서도 대학 재정 지원의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지 방대 육성은 지역균형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요인이기 때문이다.

은편칼럼

우리에게 필요한 대통령 감별법



임 명 재
약사

무릇 지도자에 의해 집단이나 민족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다. 자그마한 친목단체에서 도 회장·총무의 역할에 따라 모임이 활성화 되기도 침체되기도, 심지어 해산되까지 지 한다. 하물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어 떠하겠는가. 민족 운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자리인데 국민이 허투루 뽑아서야 되겠는가. 유권자들이 반드시 살펴야할 대통령의 자질 몇 가지를 짚어보자.

최우선적으로 꼽아야 하는 항목은 공평 성이다. 우리나라 경쟁력을 한층 더 키우 는데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 대통령이 권 력으로 정권을 창출하는데 기여했거나 자 신과 친분이 있는 인사를 지원해준다면 그 아발로 일반 국민의 삶은 피폐해질 것이

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 그리고 그에 부화뇌동한 공직자들의 행태를 지켜본 우 리들은 철저히 이를 검증하여야 한다.

이런 기준으로 그 후보가 살아온 삶에 서 일반 국민과 같은 수준의 의무를 잘 이 행하였는가를 검증하여야 한다. 군복무 를 하였는지, 법규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자녀와 가족들 또한 그러한 자세를 지켜 왔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온갖 이유로 군 복무를 회피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 며 작은 위법행위라도 저질렀다면 그 후 보는 당선된 후 편의대로 권력을 이용하 게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정치철학이다. 정치인은 공무원이나 기업인의 사고방식과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국가를 무난하게 운영하 는 정도의 상식적 사고라면 지도자라고 볼 수 없다. 차라리 공무원이 되어서 법대 로 집행하는 사무를 담당해야 한다. 외교 와 경제, 그리고 국민의 사소한 삶에 이르 기까지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자신 만의 철학과 실천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 것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포부도 명 확해야 한다.

국가는 기업인과는 달리 이익과 효율만 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국민 대

다수를 차지하는 소외되고 경쟁력 약한 사람들의 삶은 피폐하게 될 것이다. 이를 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서 자신이나 그 자녀가 신분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신감도 심어주어야 한다. 이러한 사고 방식은 그 후보가 어린 시절부터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과연 국민대중의 삶을 이 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다. 탄핵을 받는 박대통령과 최순 실, 그리고 김기춘과 그 일당, 심지어 소 위 박사모라 불리는 사람들은 박 대통령 을 비판하면 무조건 좌파 종북세력이라 고 한다.

종북이라는 것은 북한을 추종하거나 북한과 같은 부류라고 손가락질하는 것 인데, 오히려 그들이 지칭하는 좌파 종북 세력들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요구하고 공정한 민주사회를 지기려 하고 있다. 반 면, 박대통령, 김기춘과 같은 일당들은 언 론사에 낙한 인사를 임명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비판세력에게는 각종 축쇄를 채워 삶을 위협했다. 심지어 법으로 보호 되는 공무원의 생존권마저 마음대로 박

탈했다.

대통령은 검찰과 언론, 그리고 행정기 관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누구라 도 옳지 않은 것에 반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철학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철학이 후보자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지속적이며 일관된 약속을 통하여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유권자가 변해야만 지도자가 바뀌고 대한민국의 체질이 개선될 것이다. 단순 한 이미지만으로, 같은 지역출신이라고 해서 선택했다간 박 대통령과 같은 전철 을 또다시 밟게될 것이다. 이번 탄핵사건 의 원인이 유권자에게 있음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 대통령이 국민을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다. 대통령이 경제를 부흥시킨다는 것도 헛된 약속이 다. 믿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행복을 추 구할 여건을 마련하고, 우리 아이들이 차 별받거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해줄 수 있 어야 한다.

.....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 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 는 코너입니다.

기 고

‘신안 보물선’이 우리에게 남긴 것들



문 동 수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관·문학박사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30일까지 98일 간 열리는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신안 해저선에서 찾아낸 것들’이 어느덧 폐막 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시가 벌써 막바지 에 이르니 만감이 교차한다. 이 중차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수개월간 숨 가쁘게 달려왔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소중한 문화재를 다루는 건 늘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이번처럼 깨 지고 부서지기 쉬운 수천 점의 도자기와 금속공예품 등을 만지는 것은 마음가짐 부터 다룰 수밖에 없다. 전시품을 옮기는 물리적 거리만 보더라도 서울에서는 수 장고에서 전시실로 직행하면 그만이지만 광주까지는 운송하는 데만 트럭으로 5시 간 이상 소요되므로 전시 준비 내내 긴장 감의 연속이었다.

다육이 전시품 한 점 한 점의 상태를 면 밀히 점검하고 포장하는 데만 10일 동안

수십 명이 투입되었다. 이후 35개의 커다 란 알루미늄 상자를 5t 트럭 다섯 대에 싣 고 어두운 저녁이 되어서야 광주에 도착하 였다. 이것을 다시 점검하고, 지면에 대비 해 일일이 안전하게 고정하던 직원들의 열 정 어린 모습까지도 눈에 선하다. 이 모든 과정들이 흰말이 달리는 모습을 문뜰으로 내다보는 것처럼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 는 ‘백구과국’(白驢過國)처럼 느껴진다. 비 록 그 짧은 시간은 잃어버린 신안 보물선 의 잔해가 파도와 바람에 밀려 사라진 지 650년이라는 세월에 비할 수 없지만..

그토록 오래 잠들어 있던 진귀한 보물 이 세상의 빛을 본 지 벌써 마흔 돌이 넘 었다. 1976년부터 9년간 11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진행한 발굴에는 SSU 해군 부대요원을 비롯한 문화재관리국, 국립 중앙박물관 관계자 등 많은 사람이 참여 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어 자욱한 20여m 깊은 해저에서 보물 하나 하나를 건져 올린 다이버들에게는 얼마 나 험난하고 고된 작업이었는지 줄곧 머 리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역사에 길이 남을 금자탑을 이룩한 이른 바 신안해저선 발굴 40주년을 기념해 열린 특별전은 개막하자마자 뜨거운 감동을 선 사했다. 수중 발굴된 2만4000여 점 중 2만 여 점이 처음으로 공개된 그 순간은 사 람들 충격 속으로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단일 전시에 내놓은 수량 자체만으 로도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전무후무한 기 록이었다. 위대한 발견에 걸맞은 행사 초 우의 기념비적인 대접이었다. 이 경이로 운 행사에 또 다른 조력자 역할은 순회 전 시를 앞둔 국립광주박물관과 국립해양문 화재연구소가 도맡았다. 서울 나들이를 통해 신안선의 보물끼리 오랜만의 이산 상봉을 하도록 도왔던 셈이다. 기간 상호 간에 대의를 위해 결집하는 모범적인 사 례로서 상생 동력의 시발점이 됐다는 점 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서울에서 열린 성대한 잔치의 1막이 끝 나고, 광주에서 제2막이 시작됐다. 여기 서는 2만여 점 중 0.5t 가량의 동전과 유 물 5429점을 선별해 전시 내용을 새롭게 연출했다. 신안선 보물이 갖는 의미를 1978년 국립광주박물관 건립의 취지와 연관 지어 차별화했다.

광주·전남 지역민에게 신안선 보물은 동아시아 해상무역의 획을 긋는 소중한 문화재이자 국립광주박물관의 위상과 정 체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이 번 특별전이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주었 다. 전시가 종료되면 그동안 미비했던 점 들을 보완하여 신안실을 새롭게 개편하 고자 한다. 전시는 물량 위주가 아닌 동아 시아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해상무역로 를 통한 교류와 한·중·일 문화의 공존분

모를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14세기 동아시아의 문화교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활발했고, 이를 통 한 문화의 공유가 지금의 한류처럼 있었 던 것 같다. 그러나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 는 점들이 적지 않다. 당시 교류의 산물인 한·중·일에 현존하는 송·원대 무역도자 기 및 공예품의 현황과 분포 지도를 제작 해 재조명하는 일은 남은 과제를 해결하 는 키 중의 하나라는 생각도 든다.

이번처럼 수중 발굴과 수장 및 전시에 전문적인 기량을 지닌 국립기관 간에 공 동 목표를 지향하고 상호 협력이 요구될 때에는 함께 조사함으로써 더욱 높은 성 과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를 위 해서는 국내외 연구자를 적극적으로 유 치하고 교류함으로써 연구에 새로운 활 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신안선에서 나온 보물의 가치와 중요 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 리 박물관은 신안실의 소중한 문화유산 에 대한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중·장 기 발전계획 아래 인프라를 구축해 연구 조사에 매진하려고 한다.

보물을 실은 배들이 세계의 해양에서 종 종 발견되어 현대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 고 있는 이때 이번 특별전은 세간의 관심 을 불러일으키고, 여러 가지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無 等 鼓

아홉 살짜리 미국인 소년 팀 서록은 1960년 서울에서 4·19 혁명을 목격했다.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서 살던 때다. 거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가는 한국 청년들의 모습은 충격이었다. 그때 부터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기 시작한 그 는 한국 사회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됐다.

팀 서록이 다시 한국을 찾은 것은 1981년이다. ‘저널 오브 커머스’의 기자 가 된 그는 광주의 참상을 취재하면서 신 군부의 무자비한 동족 살해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1985년에는 광주와 목포를 오가며 수많은 5·18 생존자들을 만났다.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미국을 믿 었는데 배신당했다”는 것이었고 진실 을 밝혀 달라는 요구였다.

1989년 한국 국회에서 5·18에 대한 진상 조사가 시작되자 미국은 이에 대응 해 배서를 발간했다. 팀 서록은 배서를 꼼꼼히 읽어 보았지만 모두 거짓이었다. 곧바로 정보공개법을 활용해 5·18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카터 대통령의 한국 담당 비밀대책 팀과 전두 환 신군부 사이에 오간 비밀 전문이 담겨 있는 ‘체로키 파일’은 이렇게 탄생했다.

파일에는 발포 직후인 1980년 5월 22

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국 관련 최고위급 회의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는 온건 조 치에 대해 합의했지만 무력 사용을 배제 하지 않았다. 한국 측은 질서 회복을 위 해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무력 진압을 승인한 미국 측의 입장을 세상에 알린 최초의 보도였다.

체로키 파일 원본이 며칠 전 광주에 왔다. 팀 서록 기자가 기증한 것으로 58 개 묶음에 3500여 쪽에 달한다. 파일에 는 5·18뿐만 아니라 박정희 암살 때부 터 1980년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시각 등 이 폭넓게 담겨 있 다 고 한다.

탐사 전문기자인 팀 서록은 광주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2015년 광주시 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아 “폴리처상 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영광이다”라며 감격해 했다. 지난해 5월 광주전남기자 협회 주최로 열린 ‘5·18 당시 특파원 초청 행사’에선 “광주 시민의 공동체 정신(communal spirit)을 영원히 간 직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올 봄에도 두 달간 광주에 머물 계획이라고 한다. 그와 함께 체로키 파 일을 꼼꼼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회다.

/장필수 정치부 부장 bungy@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11월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 제 부 220-066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AX 222-4938)	(FAX 222-8005)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FAX 227-9500)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